

해남 고구마, 중소농 공동출하로 가락시장 진출

22등급 표준선별기준 적용 규모화, 공동선별·세척 강화로 품질 경쟁력 확보

해남군 대표 농특산물인 해남고구마가 중소농 공동출하를 통해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 진출한다.

8톤 규모로 첫 출하를 시작한 해남고구마는 매주 2회에 걸쳐 연중 고구마를 출하할 예정이다. 현재 해남고구마 생산유통출하회를 통해 해남고구마 약 1,000톤을 확보한 상황으로, 순차적으로 출하하게 된다.

해남고구마는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로 인해 품질 편차가 크고, 공급 물량이 분산되어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남군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소규모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해남고구마 생산유통출하회'를 결성하고, 생산-선별-출하 전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직화된 출하 체계를 구축했다. 해남고구마 생산유통출하회는 공동 출하를 통해 물량을 집적·규모화하고, 표준화된 선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품질 균일성을 높여 오면서 이듬해 6~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출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세척·건조·선별 공정의 정밀도를 강화하고, 세척-건조 라인 자동 시간 확대와 22등급 선별 기준 표준화를 통해 출하 물량의 균일성과 상품성도

높였다. 저장시설을 활용한 계획 출하 방식으로 물량을 분산 운영해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도매시장과의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산유통출하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공동출하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유지하고, 중·소농 중심의 조직화와 현장 위주의 품질 관리가 안정적인 출하와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덕현 기자

급식 조리사 처우 개선과 친환경 급식 지속 추진

아동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추경 편성 적극 검토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가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른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급식 단가의 20% 이내)’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

얼’에 따라 급식비 자율지출분이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건비 총당이 급식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동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는 시비 지원을 통해 조리사 급여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월 약 10만 7천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자율지출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월 1,076,300원(주 20시간 근무 기준) 이상의 급여는 차질 없이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급식비 자율지출분 활용은 아동급식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임시적 조치”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지침 안내를 마쳤으며, 이용 아동 1,360여 명에게 차질 없는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이영임 기자

남구 지역최초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 추진

광주 남구는 정부에서 오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광주 지역 최초로 추진한다.

남구는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면서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별 예산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선택·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서비스를 바꾸쳐로 제공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장애인 개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바꾸쳐로 배정해 해당 금액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개인의 삶의 방식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제도로 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3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활동 지원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까지 4대 분야 바꾸쳐 수급 시범 대상자 20명을 선발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발 장애인은 개인별 바꾸쳐 총지급액 가운데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으

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A씨가 매달 300만원 가량의 활동 지원 서비스 바꾸쳐를 받는다면 이중 60만원 가량을 보조기구 또는 건강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시범 사업 기간에 장애인 20명에게 지급하는 개인 예산은 총 4,600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게 핵심이다”면서 “시범 사업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권일 기자

고흥 ‘365 군민소통폰’ 작은 목소리도 OK!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해 9월부터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군수와 온 군민 소통채널 ‘365 군민소통폰’을 통해 4개월간 총 354건의 제안·건의 등이 접수돼 이 가운데 346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365 군민소통폰’은 군민과의 소통을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시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군민들이 제안, 건의, 고충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군수가 직접 확인한 뒤 해당부서에 검토를 지시하고, 2일 이내에 답변하는 고흥군의

대표적인 군민 소통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65 군민소통폰’을 통해 접수된 354건 중 346건(97.7%)이 처리 완료됐으며, 미처리 건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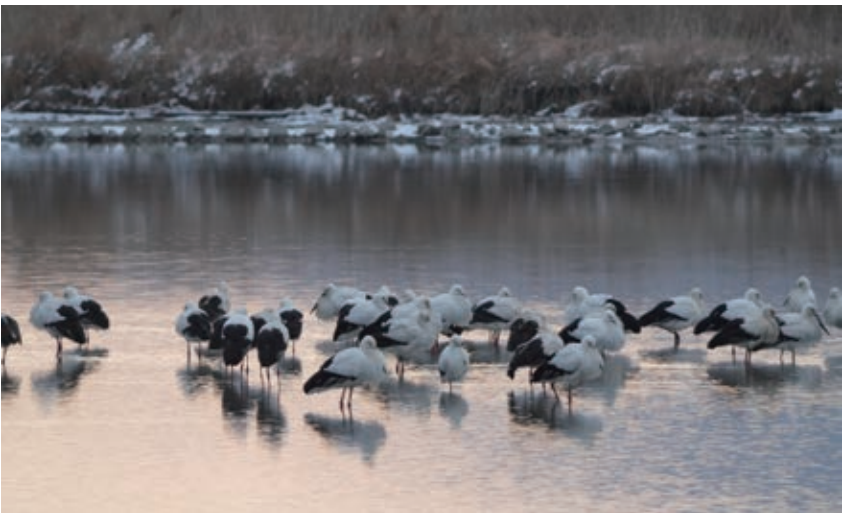
유형별로는 건의가 243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흥 54건(15%), 제안 18건(5%), 기타 39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충음 40건(11%) ▲도양음 36건(10%) ▲금산면 31건(9%)

우덕현 기자

고창군 해리천, 황새들의 겨울집이 되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황새, 역대 최대 80여 마리 월동 확인



고창군이 해리천 일원에서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무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여 마리나 월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에선 지난 2021년 60여 마리, 2023년 67여 마리가 발견됐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고창 해리천이 황새들의 핵심 월동 지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황새는 예로부터 길조(吉兆)로 여겨져 왔으며, 고창 해리천이 이처럼 대규모 황새 무리의 ‘겨울집’이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해리천은 해수가 유동되는 자연 하천으로, 맹추위 속에서도 수면이 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 이는 새만금, 서산시, 태안군 등 국내 주요 황새 월동지들이 최근 한파로 결빙되면서 황새들이 얼지 않은 해리천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리천 주변에 넓게 분포하는

갯벌은 미꾸리, 갯지렁이 등 황새가 좋아하는 풍부한 먹이원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안정적인 월동을 돕고 있다. 이데 더해 고창군은 황새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먹이주기 및 환경정비 등 서식지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황새의 야생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먹이주기 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황새 개체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줬다. 2023년 공음면 예전리로 동지탐을 이전 설치하는 등 번식환경 개선에도 힘썼으며, 고창에서 태어난 아기 황새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에 태어난 ‘찬란(G66)’, ‘행복(G67)’, ‘활력(G68)’ 3마리와 2024년에 태어난 ‘노을(K27)’, ‘푸름(K28)’, ‘오손(K29)’, ‘도순(K30)’ 4마리는 서해안 일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고창의 건강한 생태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3

이영임 기자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지원 총력

딸기 농가에서 5일간 농작업 기술 전수 현장 지도



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잠재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했다.

완주군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농작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영농 시기별 농작업 시청각 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입국한 숙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성실

근로자 모범 작업단’을 구성해 신규 근로자에게 작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체계적인 교육과 소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전주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4억 지원한다

전주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 한해 총 154억 원의 융자금모를 확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이 중 60%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범인택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으로 설정됐다.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

또는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여건 처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흐름 지원으로 전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사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세영 지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반시설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승민 기자